

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지구 96바퀴 비행거리 단축, 6만 5천톤 탄소배출 저감

- 단축항공로 운영으로 소나무 7백60만그루 식수효과 창출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'23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, 국제선 545,478대 중 197,544대(36%)가 단축항공로*를 이용하여 총 385만 Km (약208만 마일), 지구 96바퀴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.

* 단축항공로는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, 군 비행이 없는 시간대 등 특정한 조건에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항공로를 뜻한다.

○ '22년에는 국제선 총 276,356대 중 99,115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2,145,710km를 단축하였으며, '23년에는 국제선 교통량의 증가와 함께 국토부·국방부(공군)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'22년 대비 단축거리는 1,707,251km(79.57%↑) 증가하고, 단축항공로 이용률은 36%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.

< 최근 3년간 단축항공로 이용실적 >

구분	2021년	2022년	2023년
국제선 교통량	203,029대	276,356대	545,478대
단축항공로 이용교통량	52,982대	99,115대	197,544대
이용률	26%	36%	36%
총 단축거리	971,929km (524,800 마일)	2,145,710km (1,158,591 마일)	3,852,961km (2,080,433 마일)

○ 주요 단축항공로 순위를 살펴보면,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,663,137km(898,022마일)로 가장 크게 단축하였으며, 미주일본 노선은 약 1,141,773km(616,508마일),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579,802km(313,068마일)를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.

* (남중국 노선) 푸둥·심천·하노이·광저우·치앙마이·카트만두·뉴델리 등

** (미주·일본 노선) 도쿄·오사카·앵커리지·로스앤젤레스 등

*** (동남아 노선) 다낭·홍콩·싱가포르·호치민·타이페이·쿠알라룸푸르 등

< '23년 주요 목적지별 단축항공로 이용실적 >

주요 단축구간	단축항공로 이용 교통량	단축거리
① 남중국 노선	39,881 대 (20%)	1,663,137km (898,022 마일)
② 미주·일본 노선	71,386 대 (36%)	1,141,773km (616,508 마일)
③ 동남아 노선	48,791 대 (25%)	579,802km (313,068 마일)
④ 기타 노선(유럽, 오세아니아 등)	37,486 대 (19%)	468,249km (252,835 마일)
합계	197,544대 (100%)	3,852,961km (2,080,433 마일)

- 국토교통부는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4,487시간의 비행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약 239억 원 상당의 항공유 20,738톤을 절약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를 통해 항공사의 항공유 비용 부담을 줄이고,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지연을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며,
- 또한 65,471톤*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소나무 약 7,612,906그루의 식수효과**를 통해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환경적인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
- * 탄소배출량 = 연료소모량 × 3.157KG (출처: ICAO 환경보고서)
- ** 30년생 강원·중부지방 소나무 한 그루 당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: 8.6kg(출처: 국립산림과학원 ‘주요 산림수종의 표준 탄소흡수량’, 2019.7.)
-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“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소속 관제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관제현장에서의 적극행정의 결과로,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정시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며, 앞으로 보다 빠르고 안전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안전정책관 항공교통과	책임자	과 장 곽영필 (044-201-4294)
		담당자	사무관 하후호 (044-201-4303) 주무관 임주영 (044-201-4301)
담당 부서	항공교통본부 항공관제과	책임자	과 장 백태용 (053-668-0241)
		담당자	주무관 노재준 (053-668-0244)



참고

주요 단축항공로 도면

